

# 자궁암 조기 발견으로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거두 1리에서 부군 장종옥씨 (41세)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남의 땅에 소작을 붙이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경자씨 (40세).

그녀가 건협 강원도 지부에서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무료 자궁암

## 자 궁 암



# 건강을 되찾았다

검사를 받게 된 것은 '85년 11월16일의 일이었다.

검사결과 Cless 4 라는 선고를 받은 이후, 재검에서 수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되찾기 위한 생활을 하면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추수를 끝낸지도 오래된 눈에, 널려진 지푸라기들이 마른 모습으로 겨울을 맞이하던 날 강원도지부의 이우광 사업과장, 이균익주임과 함께 방문한 기사를 이경자씨는 농촌주부의 순박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 어디에서도 엄청난 시련을 겪은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지금 건강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질문에 겸손한 자세로 입을 여는 이경자씨는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강원도 인구억제 특수  
시책사업으로 가족계획  
협회, 도, 건협의  
협조하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협은 부녀회를 통해  
영세민 대상의 자궁암  
검사를 합니다.

## 무료자궁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부부관계를 가질 때 출혈이 있기는 했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병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생활에 쫓기다보니 신경을 써서 병원엘 가본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조차 돌볼 기회가 없었던 이경자씨가 얇은 미소와 함께 건넨 말이다.

그런 이경자씨가 자궁암검사를 받게 된 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인 영세민대상 무료 자궁암검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강원도의 인구억제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족계획협회, 도(道), 그리고 우리 건협이 협조하에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건협은 무료 자궁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건소와 협조해서 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서 영세민들에게 자궁암검사를 해주고 있지요. 이경자씨도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으시게 되었지요.』 이우광 사업과장의 무료자궁암 검진실시에 대한 설명이다.

## 마을부녀회에서 자궁암 자가채취기를 주더군요

『마을 부녀회에서 자궁암 자가채취기라는 것을 가져다 주더군요. 무슨 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해본 검사였어요.』 이 경자씨는 이사업 과장의 말에 이어, 자신이 자궁암 검사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채취기를 건협에 보낸 후, 20일쯤 후에 결과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세포진 검사 결과 ‘Class 4(즉시 부인과적 세포진 재검요망)’ 라고 쓰여 있더군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막막했었어요.』라고 통보서를 받아들던 당시의 상황을 이경자씨는 설명했다.

## 자궁암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자궁암을 0기~4기까지 분류하는데 0기를 다시 세포진검사에 의해 1기~5기까지 나눕니다. 이경자씨의 경우는 세포진 검사결과 Class 4에 해당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수술을 하면 완쾌될 수 있는 단계지요. 이 시기에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요.』 안석록 검사소장의 자궁암의 발전과정에 관한 얘기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자궁암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그점에 있습니다. 이경자씨는 다행히 어느정도 빨리 발견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석달안에 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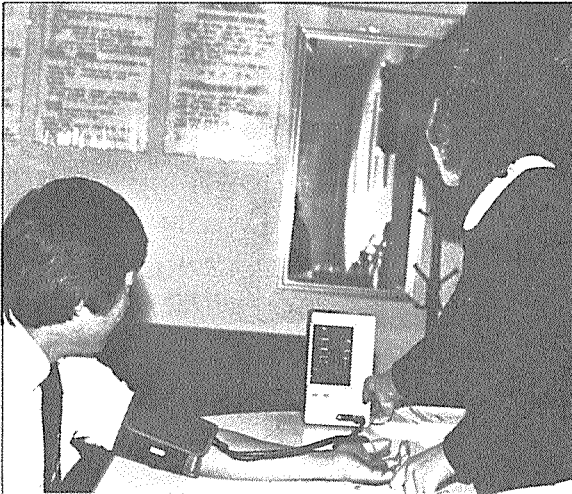
『저의 걱정을 듣고 동네사람들은 괜찮을 거라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면서 안심시키더군요. 우리들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아는데 있었겠어요?』 이경자씨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바로 무지였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고, 애들 아버지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도림병원을 찾아가 건협외의 결과서를 보여주고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3달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동안 멍청히 서있다가 왔습니다. 형편도 형편이고, 죽음이 코앞에 와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하는 이 경자씨의 얼굴표정에서 기자는 당시에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읽어낼 수 있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애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고파야 한다면서 춘천의 모 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니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 부인들이  
모두 건협에서 자궁암검  
사를 받았습니다.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절감한 때문  
이지요.

여기까지 얘기한 이경자씨의 표정은 마치 지금 당한 일을 얘기하는 듯했다.

『정신적으로 거의 절망한 상태에서 애들 아버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치료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다독겨려주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는 그녀의 표정엔 다시한번 감사의 물결이 흘러내렸다.

## 성공적 수술이라는데에 기쁨이 눈물로

『25일만에 서울 기독교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믿어지지 않기도 했구요.』 이경자씨의 눈엔 잠시 물기가 서렸다.

『제가 겪은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마을 부인들이 모두 견협에서 자궁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지요.』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이우광사업과장은 『누구에게나 계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신경쓰려고 마음먹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병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절감하고 쉽게 실천에 옮기게도 되지요.』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자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여러병원을 전전하고 수술을 받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입니다. 견협과 애들아버지, 기독교병원 의사 선생님, 그리고 물질적·정신적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동네사람들...』 이경자씨는 자신의 아픔을 함께 해주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결코 잊을



건강관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신력 확보와 대민홍보가 중요하고 특히 경험자들의 입을 통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자 확보를 위해 친절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전개해야겠습니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술 후 기독교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26일 견협에서 재검사를 받아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그의 이 말 속에서 기자는 신체적 건강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안정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민홍보입니다

『무료 자궁암검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道), 가협, 우리 견협 등이 협조해서 단산을 했을 경우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더 넓혔으면 합니다. 도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강원지부 사무국장은 자신의 사업계획을 깊은 의지와 함께 이렇게 표현했다. 그외에 그는 내년에는 국민학교 신입생 심전도 검사의 정착, 그리고 X-Ray가 설치되면 노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계획이라고 말해 빈틈없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또 장재성국장은 『이런 사업계획이 성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확보해야겠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민홍보인데, 그중에서도 경험자들의 입을 통한 홍보겠지요. 그러한 경험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을 한마디로 표현한 액자가 문득 눈에 들어왔다.

“사업추진은 최선을!, 업무는 책임있게!”

춘천의 한적함과 작별을 고하고 서울행 저녁기차를 탄 기자의 눈에 기차옆을 스쳐 지나가는 경치위로 순박한 웃음을 잊지않던 이경자씨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들어왔다.

기자는 기원했다.

부디 보다 더 많은 영세민이 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 속에서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이은희記)